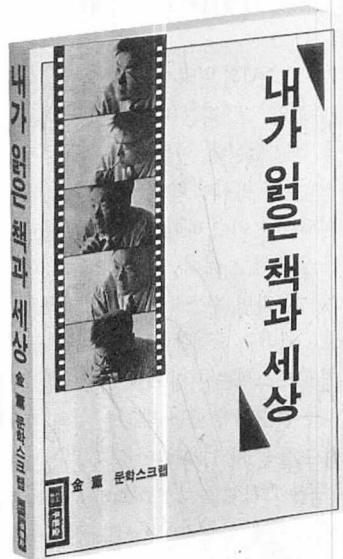


# 우리시대의 탁월한 文學저널리스트

## 「내가 읽은 책과 세상」의 金薰을 말한다

성민엽

문학평론가·충북대 중문과 교수



늦은 감이 있지만, 저널리즘 문학비평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갖는 문화적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월평을 비롯한 신문 문화면의 모든 문학기사는 전문적인 문학저널리스트에 의해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그 주장에는 자못 설득력이 있다. 한국일보의 김훈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아마도 거의 한국 최초의 전문적인 문학저널리스트일 것이다. (문학비평가나 시인이면서 문화부 기자이기도 했던 김병익·기형도 등도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말하는 의미에서의 전문적인 문학저널리스트가 아니었다.)

### 민첩성·개방성 토대로 한 글읽기

김훈은 저널리즘 문학비평이 어떤 것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선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 나름의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읽고 그 나름의 의미부여와 가치판단에 의거해 작품을 선별, 그의 글읽기를 기사로 쓴다. 그의 글은 문학비평가들의 글과는 다른 민첩성과 개방성, 유연성과 생동감을 지니고 있다. 그의 글을 신문기사로서 부적합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저널리즘에 대한 피상적인 실증주의적 시각에 갇힌 견해일 뿐이다. 더구나 김훈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문학이지 않은가. 인간과 사물의 풍요성을 제거해 버리고 그것들을 단순화하며 質에 대한 깊은 느낌 대신에 量에 대한 얕은 재단에 치중하는 저널리즘의 나쁜 속성을 김훈은 그 나름으로 극복하고 있다. 김훈의 스타일은 저널리즘 문학비평의 가능성의 넓이 중 뚜렷한 하나의

개성인 것이다.

그 김훈이 자신의 글을 모아 엮어 「내가 읽은 책과 세상」(푸른숲, 89)을 펴냈다. 그의 글을 한자리에 모아 읽으니 그의 개성이 한층 선명하게 부각된다. 김훈의 글은 공감의 글이다. 그는 작품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그와 작품의 만남에 대해 쓴다. 하재봉의 시에 대해 쓰면서 “나는 그 시집 속에 나오는 강과 시간, 나에게 대하여 논리적 분석을 가할 계획이 없다. 나는 단지 그것들이 나에게 부딪쳐 깨어져나간 내 마음의 파편들을 주워 모으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의 글이 공감의 글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의 공감의 영역은, 그 문학적 경향에 있어 이쪽 극단에서부터 저쪽 극단에 이르기까지에 폭넓게 펼쳐져 있다. 그는 나혜철·이영진·이시영·김명수·김준태·박주관의 광주에 공감하며, 김기문·서정주·유치환의 경주에 공감한다. 김수영·이근배·김명수·송수권·정호승·하중오·강은교의 풀들이 그의 넓은 한 공감대에 포괄된다. 그 폭넓음이 가능한 것은 그의 감수성이 놀랄만 만큼 열려 있기 때문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의 주관적 정서가 보다 근원적으로 깊은 곳에 뿌리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도저한 연민의 정서이다. 그의 연민은 인간의 수고로운 삶, 보상이 없는 인간의 상처, 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의 한없는 남루, 고난의 삭임의 아름다움, 그 삭임의 삶을 뛰어넘으려는 분노 등에 대한 연민이다. 그 연민의 정서의 깊이는 곧 넓이이다. 그가 “卵生하는 것들의 자유는 낳는 자와 낳음을 받는 자 사이의 괴롭고도 무거운 관계를 세우지 않는다”고 쓸 때,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胎生하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에 대한 연민이다. 그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부랑이나 세계와 세계 아닌 것 사이에서의 서성거림에 대해 각별히 공감할 수 있는 것도 그 뿌리를 그 연민에 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 연민은, 속물적 교양주의나 파렴치함을 제외한 인간의 온갖 진정한 욕망과 진정한 고뇌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 기성질서에 대한 침예한 반항인

1948년생인 김훈의 삶의 편력을 엿보고 그의 사람됨을 돌이켜보면, 그는 냉소적인 아웃사이더이며 기성질서에 대한 침예한 반항인이며 강도높은 허무주의자이다. 그런 그의

### 저널리즘 문학비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훈은 거의 한국 최초의

문학저널리스트이다. 나름의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읽고

스스로의 가치판단에 의해 작품을 선별,

그의 글읽기를 기사로 쓴다.

얕은 재단에 치우치는 저널리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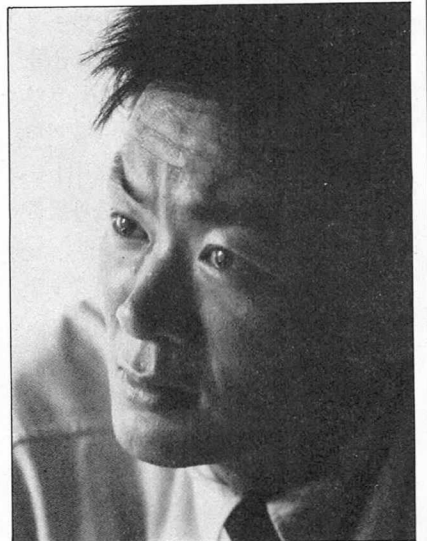
한계를 극복하여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 그의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과 치열한 예술가적 기질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의 도저한 연민은 내면 깊숙이 숨어 있어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데, 그가 그 연민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것이 그의 글에서인 것이다. 그의 연민은 그의 공감력의 원천이다.

김훈의 공감은 그러나 말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상호주관적 공감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의 주관적 정서가 능동적인 작용을 하고 작품은 그 작용을 받는 객체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그가 말하는 ‘작품의 마음’이란 것은 ‘그의 마음’의 투영이 되고, 그의 글은 인상비평에 가까워진다. 다시 그러나, 그의 주관적 정서는 깊고 넓어서 그의 인상비평을 고도의 인상비평으로 끌어올려준다. 여기에 그가 많은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비평가 김현과의 같고 다른 점이 있다. 주관적 정서의 우위라는 특성과 관계될 터인데, 김훈의 글은 대체로 소설비평보다 시비평이 뛰어나고, 시비평보다 서정적 산문이 뛰어나다. 아니, 달리 말하면 김훈은 뛰어난 서정적 산문가이고, 그의 글은 어떤 형태를 취했던 본질적으로 서정적 산문이다. 여기에 김훈의 글의 매력의 연원이 있다. 「내가 읽은 책과 세상」의 본문 첫 면을 들추자마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매력의 서정적 산문에 마주친다.

“내일이 새로울 수 없으리라는 확실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중년의 가을은 난감하다. 거들 것 없는 자들의 가을은 지난 여름의 무자비한



김훈씨

증발작용이 흰 소금의 앙금을 별판 가득 깔아 놓은 서해 남양만의 염전에서 오히려 편안하리라. 소금밭의 가을은 바래고 바래서 더 이상은 증발될 것이 없는, 하염없는 말라비틀어짐의 가을이다. 세계가 세계사에 의하여, 또는 문명이 나날리에 의하여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썰물의 서해는 감당할 수 없이 막막한 빈 공간을 안겨다 준다.”

###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마음의 젊음

김훈의 글은 독자들에게 커다란 흡인력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독서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힘이 있다. 이 점, 저널리즘 문학비평으로서의 중요한 미덕이 아닐 수 없다. 비평가 홍정선이 지적한 바 김훈 글에 나타나 는 약간의 ‘과장과 허세’도 그 미덕에 기여하는 서정적 산문의 수사학이다. 그러나 내가 더욱 좋아하는 것은, 김광규의 시에서 “일상의 풍경을 꿰뚫어, 비밀상의 충격에 도달하는 그의 언어의 힘”을 일거에 직관해내는, 본질을 꿰뚫는 김훈의 통찰력과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의 마음의 젊음이다.